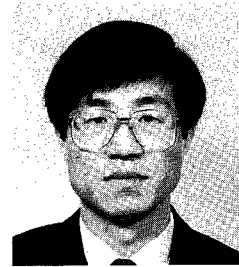


'95/'96년 배합사료 수급동향 및 전망



신 병 훈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1. 현황

금년들어 세계곡물가격은 지난 '84년 이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들어 미국 중서부지역의 폭염과 세계곡물 재고량이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도 근래들어 지속적인 국내 소비 증가에 따라 수출여력을 상실하여 완전수입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제곡물가격은 강세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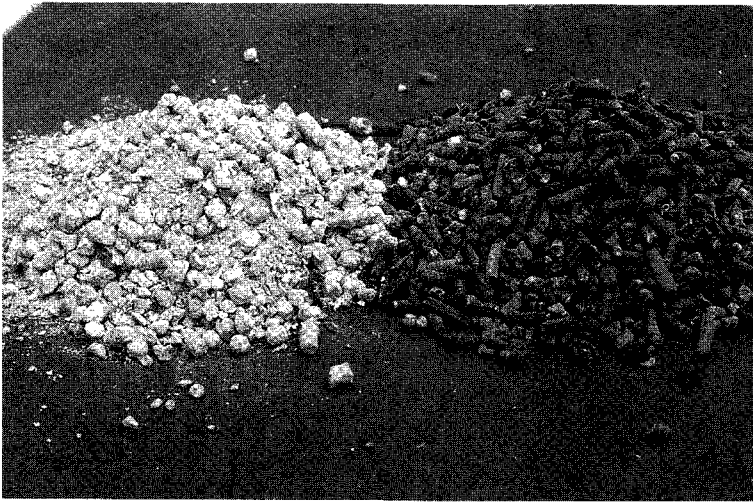
근래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WTO체제하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4년 총사료생산량은 13,545천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4%의 성장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내 사료자원 부족으로 사료원료를 거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작년도의 국내 원료사용 현황을 보면 먼저 전체원료 사용중 곡류의 사용비율은 62%, 강 피류 12%, 식물성단백질 16%, 동물성단백질 1%, 그리고 나머지 무기물 및 기타가 9%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88년 이후부터 곡류의 사용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료용소맥 및 중국산 옥수수 공급중단으로 주원료 가격이



급등하였고 옥수수의 곡류대체원료가 없기 때문이다.

'94년의 경우 옥수수의 수입사용량은 약 400만톤으로 '93년대비 10% 가량 줄은 상태이고 소맥은 약 390만톤 수입사용해 '93년에 비해 39% 대폭 늘어났으나 금년도에 와서는 소맥공급 중단에 따라 소맥사용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오로지 고가인 옥수수만을 수입사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곡류의 대체원료가 옥수수외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95년 상반기 동안의 곡류 사용비중은 작년보다 다소 낮은 58% 수준이며 이중 옥수수의 비중은 47%로 전년동기대비의 29% 수준에 비해 대폭 증가한 반면, 소맥은 4%에 그치어 작년도의 29%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원료 사용중 옥수수의 비중이 약 47%이므로 현재 옥수수가격이 C & F톤당 160불대를 유지하여 작년말 평균 수입가격인 118불에 비해 35%(42불) 상승함에 따라 순수

한 옥수수만의 가격상승시 사료가격은 약 1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곡물 가격상승이 사료가격 인상으로 연동됨으로 향후 '95/'96년도 세계곡물 가격 및 수급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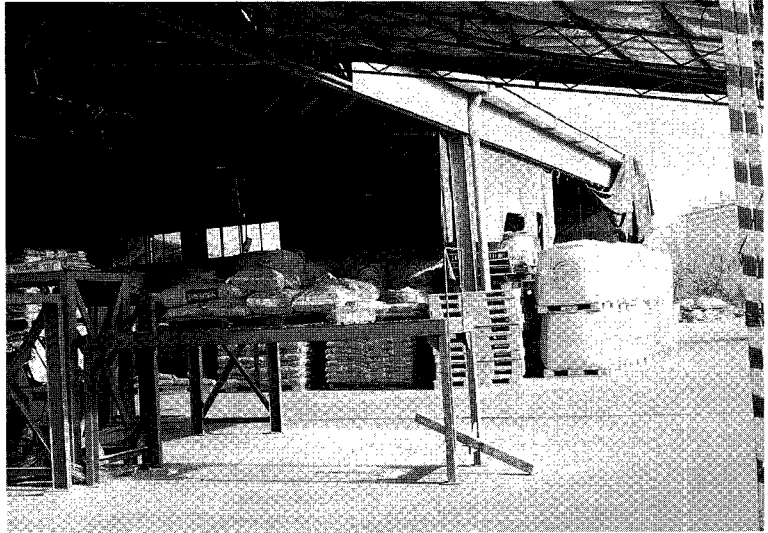
미산옥수수 가격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중국산 옥수수공급 중단 이후로 세계수요량이 미국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금년 파종기의 기상악화로 식부지연과 근래 미중서부 지역의 폭염으로 곡물작황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현재(8/15일) 160불대를 유지하여 금년 1월 139불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현재 미산옥수수의 생육상황은 silking단계로(옥수수 수염이 나오는 단계) 작년보다 생육진전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가격지지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선박운임이 상승하고 옥수수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이 상승한 것도 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옥수수가격뿐만 아니라 소맥가격도 작년에 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소맥가격은 금년 6월들어 불리한 기상조건과 생산감소에 따라 지난 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사료용소맥 가격도 주요 수출국들의 공급량 부족에 따라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물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두가격은 옥수수·소맥가격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브라질 등 남미의 대두 풍작과 세계재고량이 다소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현재(8/15일) 미산대두가격은 266불대로 '94년말 평균가격인 273불보다 7불 가량 떨어졌고 '93년에 비해서도 12불 하락하였다.

또한 사료용보리 가격에도 세계공급량 부족과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 따라 강세에서 유지되고 수수가격도 옥수수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 대두박 등 부원료가격도 옥수수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전반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년도 세계공급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계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고량이 점차 줄어들어 곡물수급이 불안하여 향후 국제가격은 장기적인 강세국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수급동향 및 전망

세계 '95/'96년 사료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6% 감소한 8억 1,800만톤으로 예상되었고 세계교역량도 소비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고량은 생산감소와 소비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6% 감소한 9,560만톤에 그치어 재고율이 10% 수준으로 작년도 14%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사료곡물 생산, 소비량, 재고량은 '94/'95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태이며 수출량도 작년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사료곡물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의 생산은 세계가 5억1,600만톤으로 전년대비 27% 가량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의 옥수수 생산은 식부면적 감소와 불리한 기후조건으로 인한 파종의 지연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한 2억600만톤으로 예상되었고 재고량도 2,000만톤으로 작년도의 절반이 줄어든 상태이다.

이에따라 금년 수출량도 5,000만톤으로 예

상되어 작년에 비해 7%인 380만톤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향후 기상조건이 현재보다 더 불리할 경우에는 이 수준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장기적인 수급불안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난해 까지만 해도 주요 곡물수출국이었던 중국이 금년 들어서면서 부터 완전 수입국으로 전환되어 작년도의 경우 미국산 옥수수를 약 4백만톤을 수입하였고, 금년도에도 국내 소비 증가에 따라 약 250만톤 가량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곡물가격은 식생활 수준 향상, 곡물소비 급증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2~3배 이상 급등하였고 농민들도 가격이 오를 때만 기다려 출하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 구매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내의 소비가 물가상승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 인상으로 일부 양돈업자들이 새끼돼지를 급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료공장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고 있다.

남아공은 지난해 가뭄피해에 따른 감산으로 금년 식부면적 증가와 기상호조에 따라 작년보다 400만톤이 늘어난 900만톤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소비가 7% 가량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150만톤 정도 여력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구소련의 생산은 지난해 흉작에 비해 대폭 증가한 810만톤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대폭 증가에 따라 금년 수입량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5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96년 아르헨티나 생산은 작년보다 6%인 70만톤 가량 늘어난 1,150만톤으로 예

상되었고 수출량도 600만톤으로 전년보다 5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세계옥수수 수급은 작년에 이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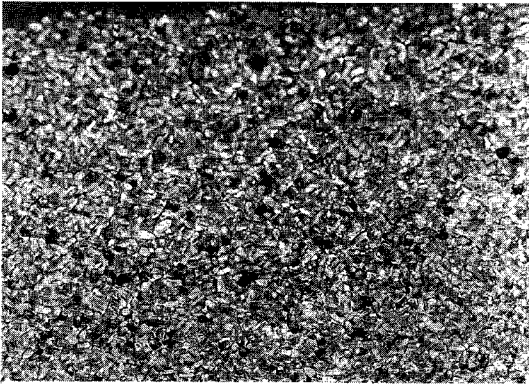
특히 지금까지 중국산 옥수수에만 의존했던 한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중국도 매년 대량수입함에 따라 세계 곡물 가격은 장기적인 강세국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소맥생산은 5억 4,000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났으나 지난 달 예상치에 비해서는 다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소련, 호주, EU 국가의 작년 대흉작에 따라 금년 식부면적 증가와 기상이 다소 호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소맥소비량은 5억 4,900만톤으로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 상태이며 지난달 예상치와는 다소 하회하였다. 이에따라 세계 재고량은 1억 500만톤 수준으로 전년대비 7% 줄어든 상태이다.

이중 미국의 소맥수급은 금년 파종시기부터 기상이 좋지 않음에 따라 작년도의 풍작에 비해서는 4% 가량 감소한 6,100만톤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강우로 인한 생육이 다소 호조되어 지난달 예상치보다 약 100만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출량은 3,200만톤으로 작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전월 예상치보다는 조금 늘어났다.

따라서 재고량은 1,210만톤으로 전년대비 180만톤 가량 줄었고, 지난달 예상치에 비해서는 40만톤 가량 늘어날것으로 보였으나 금년 재고량은 최저수준으로 수급이 불안정할 것



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보리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6% 가량 줄어든 680만에이커로 나타났고 수확면적은 640만에이커로 예상되어 작년에 비해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 단수 증가로 생산은 작년보다 3% 증가한 840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미국내 사료용소비 증가에 따라 금년 수출량은 작년보다 35만톤이 줄은 100만톤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재고량도 10% 줄은 220만톤으로 전망되어 금년 보리수급은 지난해에 이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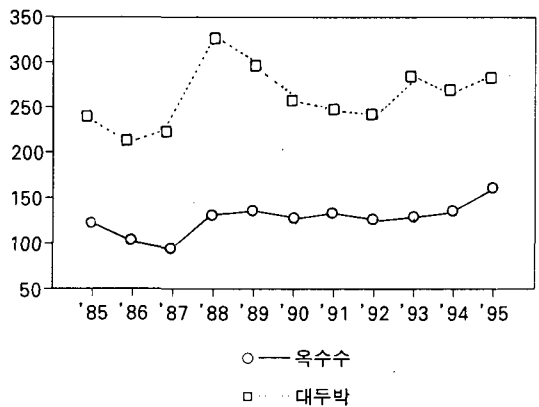
중국의 소맥생산은 금년 가뭄과 홍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1억톤으로 예상된 반면 국내소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따라 금년도에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 200만톤이 늘어난 1,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5년 캐나다의 전체 소맥파종면적은 예상보다 다소 줄었고 전년대비는 2% 늘어난 1,100만헥타로 나타났다. 이중 비중이 적은 겨울밀은 2% 늘어났으나 주요 작물인 봄밀은 예상외로 50% 가량 확대되었다. 한편 드럼밀 파종면적은 드럼밀 가격하락으로 9%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총소맥생산은 2,350만톤으로 예상되어 작년보다 다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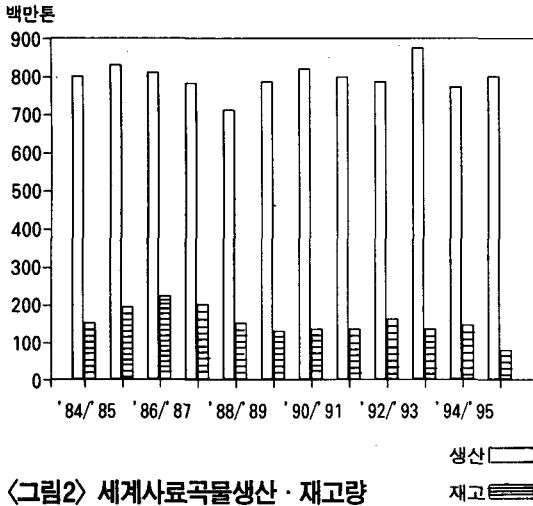
할 것으로 보이나 이월재고량 감소에 따라 공급량 부족으로 수출량이 1,740만톤으로 작년에 비해 410만톤 감소될 것으로 보여 작년에 이어 이월량 감소, 재고량 감소 등에 따라 수급이 빠듯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금년 생산은 작년도 가뭄이후 회복세를 보여 1,700만톤으로 작년보다 800만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수출량도 1,200만톤으로 작년 수준보다 56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따라 재고량은 258만톤으로 작년도 수준보다 35% 가량 회복되어 '94/'95년도 수급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사료용 소맥공급량은 작년에 이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여 금년 사료용 소맥수입은 작년에 이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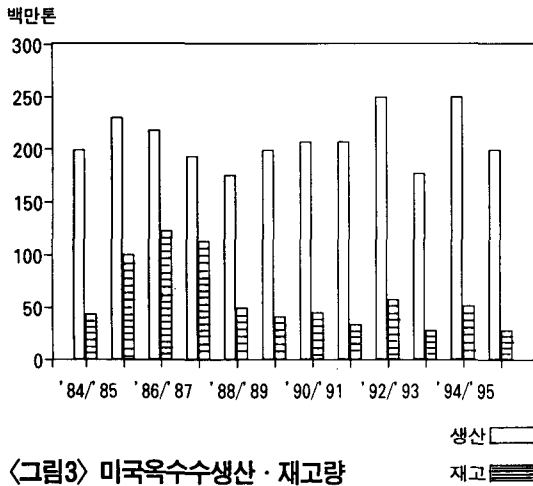
그리고 유럽의 '95년 소맥전망은 지난 몇달 동안 전반적으로 건조기후가 지속되면서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 봄곡물의 발아와 겨울곡물의 성숙에 적절한 기후가 조성되면서 작년에 비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총소맥생산은 작년에 비해 3%인 250만톤 정도 늘어난



〈그림1〉 국제곡물가격추이



〈그림2〉 세계사료곡물생산·재고량



〈그림3〉 미국옥수수생산·재고량

8,760만톤으로 나타났고 수출량도 3,380만톤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4%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고량은 1,160만톤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감소되었으나 금년 생산 및 수출량이 다소 회복세를 보여 안정국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95/'96년 세계대두생산은 전년대비 7% 감소한 1억 2,800만톤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6,100만톤으로 전년대비 850만톤 감소, 브라질은 2430만톤으로 120만톤 감소, 중국은 1,450만톤으로 50만톤 감소된 반면에 알제틴은 1,270만톤으로 작년에 비해 15만톤 증가, 인도는 390만톤으로 70만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총공급량은 전년대비 2% 감소한 1억 8,300만톤으로 예상된 반면에 소비량은 점차 늘어나 재고수준이 2,100만톤(전년대비 14% 감소)에 불과함에 따라 금년도 세계 대두수급은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년 면실생산은 대부분 미국, 파키스탄, 남미지역의 생산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10만톤 증가한 3,450만톤으로 예상되며 이중 미국은 730만톤(작년 696만톤), 남미 180만톤(작년 157만톤), 중국 765만톤(작년 757만톤), 인도 460만톤(작년 450만톤), 파키스탄 310만톤(작년 272만톤)으로 예상되어 총공급량은 전년대비 7% 증가한 3,528만톤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종생산은 중국 등 주요국 생산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 증가한 3,160만톤으로 전망되었고 캐나다의 생산은 680만톤(작년 723만톤), 중국 820만톤(작년 715만톤), 인도 550만톤(작년 535만톤)으로 예상되어 금년 세계공급량은 전년대비 7% 증가되었으며 재고량도 14% 늘어난 375만톤(작년 330만톤)으로 전망되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세계 곡물재고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세계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향후 곡물수급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곡물가격도 지속적인 강세국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계